

박수택 환경전문기자 21일 초청 강연회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는 11월 21일 오후 3시 자비심행회 강당에서 '너도, 나도, 모두 함께 살자'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초청강사에는 환경전문기자로 알려진 박수택 기사가 나왔다.

박수택 기사는 "인간이 생명을 빼앗는 오만함을 버리지 않아 화를 당하고 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고통과 억압의 사슬에서 벗어나자"고 말했다.

박 기사는 2009년 교보생명환경문화상과 정부로부터 환경의날 국민포장을 비롯해 환경보도 전문기자로 명성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에 대한 영상자료와 보도사진을 통해 한국의 환경 현주소를 보여줬다.

(062)223-3623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암산에 천상의 소리 법음 울려 퍼져

백양사 단풍축제 '쌍계루의 추야몽'... 26~29일 템플스테이 열려

전국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단풍으로 알려진 백암산에 단풍과 어울리는 축제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시몽)는 11월 14~15일 백양사 일원에서 2009 백암산 백양사 단풍축제 '쌍계루의 추야몽'을 개최했다.

행사의 첫날인 14일에는 '호국영령과 지역발전을 위한 영산대제'가, 15일에는 '산사음악회'가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실시됐다.

또한 양일간에 걸쳐 불교계 대표적 NGO단체인 JTS와 불교환경연대의 캠페인 활동이 펼쳐졌다.

시몽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법계의 법음은 천상의 소리를 들려주는 음악이며, 도업을 이루기 위한 마음의 소리"라며, "단풍철을 맞아 전국에서 온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불교음악과 깨달음을 위한 소리를 들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광주보훈청과 함께 진행될 '호국영령과 지역발전을 위한 영산대제'에는 전북무형문화재 18호로 지정



14일 백암사에서 봉행된 '호국영령과 지역발전을 위한 영산대제' 공연 모습.

된 전북영산작법보존회(회장 승천) 회원스님들이 참가해 시련, 대명, 신중작법, 상단권공, 영산작법 순으로 의식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선보인 영산작법은 여산춤과 바라춤의 춤사위가 다양하면서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여, 일반인에게 선보인 영산대제는 백양사 폐불이 1년 만에 선보였다.

산사음악회에는 최근 아시아문화교류재단(이사장 현정)이 창립한 백

두산민족예술단 공연과 퓨전국악 아이리아, 개그맨 출신 쌍둥이 가수 왕크의 공연이 진행됐다.

광주지역 새터민으로 구성된 백두산민족예술단은 '반갑습니다' '휘파람' '물동이 춤'을 비롯해, 움직임 웃음 바꾸는 '마술춤'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백양사는 백양사 주변 수백년 된 자연 비자림에서 진행되는 숲치유 명상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11월 26~29일 개최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숲치유 전문가인 신현섭 교수를 비롯해 백양사 포교국장 지정 스님이 숲치유명상 지도자로 나서 진행된다.

백양사 관계자는 "비자림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와 바람으로 생기는 음이온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한 숲치유 명상 템플스테이에 많은 참가를 바란다"고 말했다.

(061)392-7502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성숙한 불청활동 펼치겠습니다"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완주 송광사 청년회

최근 침체돼 가는 전북지역 청년불자들의 활동에 완주 송광사 청년회가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자부진하던 송광사 청년회에 청년불자들이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도영 스님(前 포교원장)이 송광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부터이다.

도영 스님 취임 후인 2006년 4월 송광사 청년 불자들이 이형철 법우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며 본격적으로 송광사 청년회를 출범시켰다.

그 후 2기 김찬옥 회장이 취임하며 법회의 활성화와 회원들의 교리강좌와 법회 진행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의 3기 서삼균(묘각) 회장, 허영 부회장, 김성규(혜진) 총무, 김민규 교무, 오정아 재무, 이희정 포교부의 집행부를 구성하고 낙후된 전북 지역의 불법홍포와 수행문화의 정착, 청년 불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송광사 청년회는 창립 이후 송광사 전주 포교당인 향산사에서의 정기적인 법회 외에도 송광사의 크고 작은 행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 지난 2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내나라 여행박람회'와 3월 금산사 불교문화축제에는 직접 한지 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매월 2번째 토요일에는 송천정보통신학교(舊 소년원)에서 전주 '우리는 선우'와 함께 한 순간의 실수를 참회하는 법회를 개최하는 한편 방학 동안에는 수련회도 개최해 왔다.

정기적으로 송광사에서 운영

하는 정심원 봉사활동에 참가해 법회를 개최하는 한편 청소, 급식, 시설보수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또, 정심원 생활인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치아가 상한 생활인들에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하기도 했다.

청년회 설립 초기 자원봉사에 대한 노후가 부족하다고 느낀 회원들은 전주 지역의 무지개 봉사단 등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봉사단에 참여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노하우를 직접 배워오기도 했다.

부처님오신날 즈음에는 멀리 서울의 장엄 등 교육에도 참가해 봉축 잠영 등을 직접 만들어 연등축제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만든 등자승 캐리커나 뽀로로 만화 캐릭터는 어린이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올해 대불청에 송광사 청년회로 등록해 송광사 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의 '청년불자 배가 운동'을 펼쳤다.

앞으로 전북지역의 불교활성화를 위해 보다 성숙한 불청활동을 펼치겠다는 송광사 청년회원들의 다부진 각오를 통해 미래의 희망찬 전북불교를 기대해 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송광사 청년회 서삼균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무.

중요목조문화재 실측자료 미비

전라남도도 지정된 중요목조문화재 상당수가 정밀실측자료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도가 11월 18일 도의회 김석원 의원(해남)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도 지정 목조문화재 53건 중 정밀실측 자료가 구비된 문화재는 6건에 불과했다.

특히 목조문화재 53건 중 15건은 간이 실측도면조차 갖추지 못해 목조문화재 관리 부실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정밀실측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인력과 예산부족이지만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문화재 역시 국가지정 문화재처럼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간이실측 자료라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임관해도 진실한 불자되길...

법만 스님, 부사관학교 수계법회 봉행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11월 15일 육군부사관 학교에서 수계법회를 열었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11월 15일 육군 부사관학교(교장 김종배 소장) 장병들에 대한 수계법회를 여산 육군 부사관학교내 법당인 호국종국사(원경법사)에서 개최했다.

350여명의 부사관 후보생들에게 5계를 설한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스님은 불자의 기본이 되는 5계를 바탕으로 임관후에도 충실하게 군 생활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5계를 수지한 장병들은 진

실한 불자로 살아갈것을 다짐했다.

한편 법만 스님은 수계에 앞서 장병들을 위한 간식과 초코파이 1000 상자를 전달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선운사 총무국장 대일 스님, 내장사 주지 지선 스님등 선운사 분발사 10여명의 스님들과 전북포교사단 김동학 포교사, 호국종국사 금강회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템플스테이 활성화 시키자!

전라북도 관계자 참석 간담회 가져

전라북도가 사람이 주는 여유로운 공간과 자연의 미, 마음 수행이 결합된 여행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나섰다. 전라북도는 최근 "김제 금산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도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도 및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김제 금산사, 고창 선운사 등 6개 사찰에서 450여 명이 수용할수 있는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해마다 참가자들이 늘어 2006년 4554명인 참가자는 2009년 현재 804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도 새만금 도로개통, 국제 해양관광단지 등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게 돼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확대와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절실한 요구되는 실정

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템플스테이가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쁜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 등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바로잡습니다 제75호 부부나혼자 김동학 포교사의 나이를 미수(88세)가 아닌 80세로 정정합니다.

단기출가 참선안거

참선전문도량 활인선원 개산 1주년

단기출가 100일 2009. 11. 26 - 2010. 3. 5(1차)
단기출가 50일 2009. 12. 19 - 2010. 2. 6(2차)

지혜란? 복잡한 것이 간단하게 되는 것이다.

- ▶ 대상 : 일반인(20 ~ 70세)
▶ 접수 :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www.hwalin.net
▶ 전화 : 1644-5266 / 070-7519-9929



참선전문도량 활인선원

안성맞춤의 교장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대한불교조계종 제주원명선원 중앙연수원 행복제작소

최상의 지혜, 참선으로 하는 단기출가참선안거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한 나를 찾는 행복 최상의 지혜를 발휘하는 참선체험

활인선원의 다른 과정

- 행복참선학교 (겨울 100일 - 주말선회)
- 2009. 11. 26 ~ 2010. 3. 5 동안거 기간
- 주말(토) 10:30 ~ 16:00 2주, 4주(일) 13:00까지
● 삼매체험 참선단식 수련회 (원명선원과 병행)
- 2009. 12월말 ~ 1월말
- 대상 : 일반인 65세까지
청소년 (고교생, 보호자동행)

일구법문을 듣는 공덕이 천만번 불공보다 뛰어나다